

또 권익현 군수는 “부안군은 앞으로도 23개 지자체와 함께 원전 안전 제도 개선과 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”이라며 “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,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”이라고 강조했다.